

문장구역의 제2외국어 학습에서의 활용 — 통번역사와 외국어학습자의 비교실험

정 다 위
(이화여대)

1. 서론

번역연습을 제2외국어 학습에 가장 널리 이용했던 방식은 16세기 라틴어 학습에서부터 비롯되어 수세기 동안 각광받았던 ‘문법-번역식 교수법’일 것이다. 문법-번역식 교수법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여전히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교수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문법-번역식 교수법으로 인해 제2외국어 학습에서 단어 대 단어의 코드 치환을 번역으로 간주하고, 번역이 단순한 코드전환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서 번역의 본래의 의미를 잃게 되었고, 번역학계에서는 번역을 제2외국어 학습에 이용하는 것을 터부시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Whyatt(2009:181) 역시 번역연습을 외국어 학습에 활용하는 것은 유용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거부당하거나 무시되어왔으며 이는 언어간 구조적 등가를 찾으려는 비현실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

는 문법-번역식 교수법의 결과일 것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다시 번역연습을 제2외국어 학습에 이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박노철, 2004; 이태형, 2008; Zojer, 2009; Gnutzmann, 2009; Gaspar, 2009; Whyatt, 2009).

본 연구에서는 제2외국어 학습자가 번역 혹은 독해를 할 때 반드시 구조적 등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환상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텍스트에 접근하고, 원천 텍스트 분석력을 키우고, 순발력을 키우기 방안으로 문장구역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문장구역의 다양한 장점을 이용한다면 통번역을 전공으로 하지 않지만 언어능력 향상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학습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문장구역은 전향적으로 독해하는 특성으로 인해 의미단위를 자연스럽게 분절하는 연습이 병행되고, 통번역의 기법의 특성상 탈언어화가 이루어진 유창한 발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여기 의미단위에서 의미란 사전적 의미가 아닌 내용적 혹은 내포적 의미를 뜻하는데, Seleskovitch & Lederer의 의미통번역 이론에서는 의미를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한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언어적 의미 혹은 사전적 의미로 분류하고, 그 단어가 담화 상황과 문맥에서 갖는 의미를 내용적 의미로 보았다. 그리고 이 내용적 의미는 통번역에 있어서 이해와 발화의 기본 단위가 된다(정혜연, 2008:46). 이러한 의미의 분류 즉 사전적 의미와 내용적 의미의 분류, 문장구역을 통한 내용적 의미에 대한 이해와 연습은 통번역에서 뿐만 아니라 제2외국어 학습자의 독해도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제2외국어 학습자가 독해를 할 때 사전적 의미에 천착하여 어색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독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기존 외국어 학습에 활용되는 독해법인 직독직해(chunk reading)는 문장구역과 유사한 부분이 존재한다. 의미단위를 분절하며 전향적으로 독해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이다. 하지만 문장구역에서는 텍스트의 의사소통적 기능에 중점을 두고 텍스트 분석을 바탕으로 탈언어화된 도착언어로 유창하게 통역을 하는 것이라면 직독직해 방식에서는 입으로 소리내어 독해하지 않으며, 텍스트의 기능이나 도착 언어의 표현 방식에 대한 크게 관심을 쏟지 않는다. 문법-번역식 교수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어 대 단어의 코드치환에 가까운데 이는 단순히 속독을 위한 독해방식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장구역을 하는 통번역사 3

명, 직독직해 방식으로 3년 그리고 5개월을 독해한 제2외국어 학습자 각각 3명을 비교한다. 문장구역과 비슷하지만 다른 직독직해 방식을 사용하는 학습자를 문장구역으로 독해를 하는 통번역사와 비교해 두 독해 방식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외국어 독해에서 문장구역이 제2외국어 학습에 활용하는데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또한 실험을 통해 외국어 학습자가 내용적 의미가 아닌 사전적 의미에 천착하여 독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통번역사간에 의미단위 분절에 공통점이 있는지 분석하고, 통번역사와 외국어 학습자간에 의미단위에서의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발화속도, 오류유형의 차이를 중심으로 세 그룹의 차이를 분석한다. 물론 통번역사와 외국어학습자의 외국어능력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외국어 능력의 차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의미단위, 발화속도와 오류유형의 차이를 바탕으로 통번역사의 문장구역 독해를 모델로 하여 외국어학습자 독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문장구역을 제2외국어 학습에 활용하기 위한 문장구역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문장구역의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여 외국어 교육에 통번역학 기술이 원용될 수 있게 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제2외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통번역학에서 언어학을 일방적으로 원용하는 일방향적인 연구에서 벗어나 통번역학이 언어학으로 지평을 넓혀 쌍방향의 다학제적 연구에 대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문장구역의 정의와 과정

Cenkova(2010)는 문장구역을 문어로 된 출발텍스트를 구어로 된 도착텍스트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홍설영(2012)은 문장구역을 광의와 협의로 분류하였는데, 광의적 문장구역은 텍스트가 있는 통역을 광의적 문장구역으로 연사의 발화가 낭독용 텍스트에서 벗어나지 않고, 통역사 역시 텍스트에 전적으로 의존해 목표 언어로 발화하는 것을 협의의 문장구역으로 구분하였

다. 즉 문장구역은 글로 된 텍스트를 눈으로 읽고 분석하면서 동시에 구두로 통역하는 방법으로 전문 통번역 과정에서 동시통역이나 순차통역 과목을 듣기 이전 선수과목이자 훈련과정으로 개설되어 있다. 그 이유에 대해 Agrifoglio(2004)는 문장구역이 학생 통역사가 순차 및 동시통역 기법을 익히기 위해 반응 속도를 높이고, 발화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였다. 텍스트가 없는 순차통역과 동시통역을 하기 전에 텍스트가 있는 문장구역을 통해서 도착언어 구술 발화속도를 높이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동시통역의 특성상 통역 이후 수정할 시간이 없으므로 예측력을 바탕으로 구술 담화를 전향적으로 통역하게 된다. 이를 훈련하기 위해서도 전향적으로 독해하는 문장구역 연습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때문에 Gile(1995)과 Lambert(2004)는 문장구역을 텍스트가 있는 동시통역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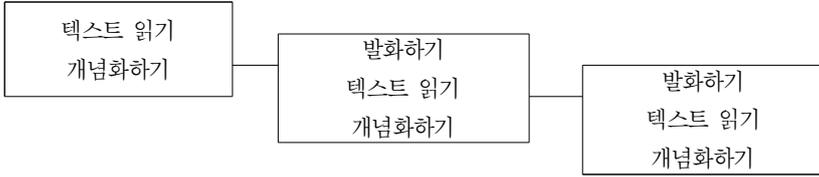
문장구역은 교육과정에서의 연습수단일 뿐만 아니라 회의 통역, 순차 통역 등 다양한 통역 환경에서 연사의 발화의 속도를 맞춰 텍스트를 보며 통역을 할 때 사용되는 통역 유형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Annalisa(2003)은 문장구역을 문장구역 통역(sight interpreting), 리허설 문장구역(RST, rehearsed sight translation), 비리허설 문장구역(UST, unrehearsed sight translation) 세 종류로 구분 하였는데, 문장구역 통역은 통역사가 통역 현장에서 발화자의 음성을 헤드폰으로 들으며 글로 된 텍스트를 번역하는 방식이고, 리허설 문장구역은 rehearsed가 리허설을 하다가는 뜻인 것처럼 텍스트의 내용을 어느 파악한 후에 문장구역을 하는 방식이다. RST는 통역을 시작하기 전 준비할 시간이 있어서 단어 등을 미리 준비해서 시작할 수 있는 반면, UST는 텍스트를 전혀 보지 못하고 바로 통역을 시작하게 된다. 실제로 텍스트가 있는 동시통역에서도 RST와 UST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장구역은 세분화해 여러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문장구역 과정에 대해 Gile(1995)은 노력모델¹⁾에서 문장구역이 텍스트를 읽고 분석하는 노력(Read)과 산출 노력(Production)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ST(문장구역)=R(읽기)+P(산출)라는 공식으로 수식화 하였다. Gile이 문장구역을 2단계로

1) 노력모델은 동시통역의 경우 네 가지 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듣기 및 분석 노력(L), 산출노력(P), 단기 메모리노력(M), 조율 노력(C)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노력의 가용 용량은 처리 용량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장했다.

나눈 것에 비해 Weber(1990)는 문장구역은 눈으로 보면서 원문 내용을 분석하는 번역적 요소와 분석된 내용을 구두로 전달하는 통역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문장구역을 3단계로 나누고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표1〉 문장구역 모형, Weber(1990)



텍스트를 읽고,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의미를 개념화하고, 개념화한 내용을 구두로 발화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즉 문장구역은 단순히 읽고 발화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텍스트 분석 및 개념화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2. 문장구역의 교육적 장점

통번역사는 이러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장구역의 반복 훈련을 통해 다양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텍스트 분석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미단위 분절연습, 단순한 코드전환이 아닌 문맥을 고려하는 내용적, 문화적 의미 전환연습을 하게 된다. Weber(1990)의 주장이 이를 뒷받침하는데, Weber는 문장구역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기술을 연습하게 된다고 보았다. (1) 빠른 텍스트 분석력, (2) 단어 대 단어의 해석을 피하는 연습, (3) 한 문화적 환경의 정보를 다른 문화적 환경의 정보로 빠르게 변환하는 것, (4) 공개적으로 말하는 기술을 연습한다고 보았다. (1)은 텍스트 분석과 관련이 있고, (2), (3)이 내용적 의미전환연습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며, (4)의 경우 문장구역은 소리내어 발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듣게 되고 따라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연습까지 된다고 본 것이다.

이 밖에도 양청수(2007)는 문장구역을 통해 두 언어유형과 상투구 숙지, 텍스트의 문장 분절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고 하였다. 문장분절에서 중요한 것은

의미단위의 분절이다. 안희영(1983)은 통번역사 문장구역 훈련에서 의미단위(meaning unit)로 분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기도 하였는데, 분절을 잘못할 경우 오역이 일어날 수 있고, 너무 세세한 의미단위의 분절은 오히려 의미파악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의미단위에서의 의미는 사전적 의미를 뜻하지 않고, 내포적 의미를 뜻한다. Vinay & Darbenet(1995:21)는 의미단위는 어휘단위와 사고단위의 복합체로 발화의 최소단위이며 그 기호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번역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즉 너무 세세한 분절이 아닌 의미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함께 분절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Gnutzmann(2009:53)은 또한 의미는 맥락으로 결정되며, 텍스트의 의미와 기능이 주제와 장소, 시기, 대상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는 텍스트를 해석할 때 단어의 사전적 의미보다는 맥락을 중시해야 하는 시각을 반영한다.

Van Dyk(2009:203)은 도착어를 완전히 습득하지 못한 외국어 학습자는 언어지식 부족으로 모국어의 단어나 구를 그대로 번역해 전달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보완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문장구역이라고 주장하였다. 문장구역은 직역이나 자연스럽지 않은 번역을 피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을 찾으려 한다는 점에서 문장구역은 외국어 학습자의 번역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향상시키는 유용한 방법임을 강조하였다. 문장구역을 일찍이 구두 번역법으로 연구한 서승진(1989)은 구두 번역법의 교육적 장점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문장구역이 순발력과 암기력을 높이며, 교수자는 학습자의 독해 능력을 진단하는 진단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모국어 표현 능력을 높이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문장구역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편이다. 정혜연(2007)은 문장구역은 통역연습 수단으로서 그 실효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고 통역계에서 꾸준히 개발되고 실시되는 여타 통역연습의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유독 문장구역의 가치에 대해서는 이론을 제기하는 이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언급하였다. 홍설영(2012) 또한 문장구역에 대한 수요가 창출되고 있지만 독자적인 통역 유형으로서의 문장구역에 대한 교육 및 학계의 관심은 부족한 편이라고 강조하였다. 더욱이 제 2외국어에서의 문장구역의 활용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수준에 있으므로 본 연구가 문장구역을

제 2외국어 학습에 활용하는 연구로서의 시작점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3. 연구 문제

이론적 고찰을 요약하면 문장구역은 텍스트를 구두로 통역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직독직해 등 일반적인 독해방법과 다른 탈언어화 과정을 거치며 직역이나 자연스럽지 않은 번역을 피하고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을 찾도록 해외국어 학습자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향상시키는 유용한 방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미단위의 분절은 자연스럽게 유창한 발화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하며 의미단위 분절시 너무 잦은 분절은 오히려 독해에 방해가 됨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장구역으로 독해를 하는 통번역사, 직독직해 방식으로 독해를 5개월 배운 학습자, 3년 연습한 학습자 세 그룹에게 같은 텍스트를 독해하도록 하고 그 방식을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의미단위 분절의 차이와 오류형태를 중심으로 탈언어화의 차이를 연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통번역사와 외국어 학습자와의 독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독해 시간차이는 얼마나 나는가?
 - 의미단위의 분절차이는 어떠한가?
 - 독해 결과물에서는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 (2) 문장구역을 활용한 독해의 유용성은 무엇인가?

4. 연구방법 및 내용

4.1. 실험방법

통번역사는 문장구역 방식으로 외국어 학습자는 직독직해 방식으로 독해를

하였다. 제2외국어 학습자는 통번역사에 비해 외국어 능력이 낮다는 점을 감안해 시험시 일정시간 동안 텍스트를 읽은 후에 독해하는 리허설 문장구역 방식을 이용하였다. 통번역사는 문장구역을 실시하기 전 2분 동안, 외국어 학습자는 5분 동안 텍스트를 읽어볼 수 있었다. 모든 참여자의 독해는 녹음하고, 시간을 측정하였으며, 독해 이후에는 이해력 검사지를 풀어 이해정도를 검사하였다. 이해력 검사지를 풀 때 역시 시간을 측정했으며, 문제를 풀 때 텍스트를 참고할 수 있었다. 독해문장구역을 녹음한 것을 들으며 연구자가 분절횟수를 세었으며 이를 통해 의미단위의 개수를 산출하였다.

4.2. 실험대상

그룹 1은 통번역사 집단으로 3년차 순차통역 및 번역 경력을 가진 인하우스 통번역사이다. 모두 통번역 전문과정에서 문장구역 기법을 익히고 숙달하였으며, 통역현장에서도 문장구역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해외거주 경험이 1년 이내인 다시 말해 한국 내에서 영어를 배워 통번역사가 된 소위 ‘국내파’ 통번역사였다. 이렇게 국내파 통번역사로 설정한 까닭은 국내파 통번역사의 경우 성인이 되어 제2외국어를 학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창한 외국어 실력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외국어 학습자의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룹 2는 직독직해 방식을 배운 후 3년간 학교에서나 스스로 학습할 때 이용해왔다고 응답한 학부생으로 토익 점수가 역시 850점 이상이었다. 그룹 3은 직독직해를 일주일에 한번 2시간씩 20주, 총시간으로는 40시간, 5개월 동안 배운 학부생으로 토익 점수가 850점 이상이었다. 언어능력이라는 변수로 인해 시험의 타당성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850점이라는 점수로 제한하였으며 외국어 학습자는 모두 해외 유학경험이 1년 이내인 대상자였다. 3년과 5개월로 시험군을 나눈 것은 기간으로 인한 직독직해 숙달정도에 따른 의미 단위의 분절 면과 독해 결과물의 차이를 비교하고, 문장구역을 활용했을 때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있는 기간을 유추해 보고자 하였다.

4.3. 문장구역 텍스트 및 이해력 테스트

문장구역 텍스트는 특별한 전문용어가 없고 417단어의 홍수를 주제로 하는

텍스트였다. 볼펜을 사용할 수 있었으며, 이해력 테스트 시에는 문장구역 텍스트를 참고할 수 있었다. 텍스트와 이해력 테스트 전문은 <첨부 1, 2>에 덧붙인다.

4.4. 실험결과 - 의미단위 및 발화속도

(1) 그룹 1 - 통번역사 그룹

통번역 경력 3년차의 통번역사 그룹을 분석한 결과 문장구역에 소요된 시간은 5분 1초, 5분 33초, 4분 39초로 평균 4분대로 나타났으며 이후 이해력 테스트에서는 1분 18초, 1분 38초, 1분 41초의 시간이 소요되어 통번역사 A의 총 소요시간은 6분 19초, B는 7분 11초, C는 6분 20초가 소요되었다. 분당 발화 단어 수는 A가 83.2개, B가 78.2개, C가 94.9로 C가 가장 빠른 속도로 문장구역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세 통역사의 문장구역 시간은 약간씩 차이가 있었지만 분절의 결과로 나타난 의미단위의 개수는 62개, 59개, 62개로 균일하게 나타났다. 이를 표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2> 그룹 1의 문장구역 결과

	A	B	C
문장구역 소요시간	5'01"	5'33"	4'39"
이해력 테스트 소요시간	1'18"	1'38"	1'41"
총 소요 시간	6'19"	7'11"	6'20"
분당 발화 단어수(WPM)	83.2	78.2	94.9
의미단위	62	59	62
이해력 테스트 오답개수	0	0	0

의미단위의 개수도 균일했지만 의미단위의 분절 위치 또한 대부분 세 실험자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텍스트의 첫 번째 문단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이 동일한 곳에서 분절이 일어났음을 파악할 수 있다. 분절한 부분을 // 기호로 표기한다.

<A>

Floods are second only to fire// as the most common of all natural disasters// They occur almost everywhere in the world// resulting in widespread damage// and even death// Consequently// scientists have long tried to perfect their ability to predict floods// So far// the best that scientists can do is// to recognize the potential for flooding in certain conditions// There are a number of conditions// from deep snow on the ground// to human error// that cause flooding//

Floods are second only to fire as the most common of all natural disasters// They occur almost everywhere in the world// resulting in widespread damage// and even death// Consequently// scientists have long tried to perfect their ability to predict floods// So far, the best that// scientists can do is to recognize the potential for flooding in certain conditions// There are a number of conditions// from deep snow on the ground// to human error// that cause flooding//

<C>

Floods are second only to fire// as the most common of all natural disasters// They occur almost everywhere in the world// resulting in widespread damage// and even death// Consequently// scientists have long// tried to perfect their ability to predict floods// So far// the best that scientists can do is// to recognize the potential for flooding in certain conditions// There are a number of conditions// from deep snow on the ground// to human error// that cause flooding//

특히 A와 C의 분절 위치는 거의 동일하다. 그 위치는 주어 동사 뒤, 문장 끝, 부사 뒤, 전치사 앞 등으로 볼 수 있다. 전체 텍스트에서 거의 동일한 곳에서 의미단위 분절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통번역사의 인터뷰에서 어디에서 분절하고 의미단위를 끊는 법을 배웠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문장구역 수업에서 이를 배운 것은 아니지만 주로 주어 동사 뒤, 긴 주어의 경우 주어의 뒤, 전치사구 앞 등에서 분절하지만 텍스트마다 다르다고 답하였다. 또한 의미단위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앞에서부터 통역하는 연습을 통해 어디에서 분절해야 할지

를 자연스럽게 습득했다고 답하여 문장구역을 통해 의미단위 분절을 습득했음을 또한 시사하였다.

(2) 그룹 2 - 직독직해 방식으로 3년 연습한 그룹

두 번째 그룹을 분석한 결과 문장구역에 소요된 시간은 7분 45초, 7분 33초, 5분 31초로 평균 6분대로 나타났으며 이후 이해력 테스트에서는 2분, 2분 11초, 2분 35초가 소요되어 평균 2분 20초대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각각의 총 소요시간은 D는 9분 45초, E는 9분 44초, F는 8분 6초, G는 11분 38초가 소요되었다. 분당 발화 단어 수는 D가 55.9개, E가 56.8개, F가 78.5개였다. 세 학습자의 문장구역 시간은 약간씩 차이가 있었지만 의미단위의 개수는 81개, 79개, 85개로 거의 균일하게 나타났다. 통번역사와 다른 점은 독해 속도 및 이해력 테스트를 푸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는 점으로 이는 언어능력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3〉 그룹 2의 문장구역 결과

	D	E	F
문장구역 소요시간	7'45"	7'33"	5'31"
이해력 테스트 소요시간	2'00"	2'11"	2'35"
총 소요 시간	9'45"	9'44"	8'06"
분당 발화 단어수(WPM)	55.9	56.8	78.5
의미단위	81	79	85
이해력 테스트 오답개수	0	1	2

또한 통번역사와 다르게 의미단위를 분절한 부분이 일정한 편은 아니었다. 문장 끝이나 부사 뒤, 주어 동사의 뒤에서 분절하는 것은 동일했으나 분절이 더 많이 일어났고 일정하지 않았다. 학습자 F의 경우 텍스트를 빨리 독해하기는 했지만 정확도면에서 넷 중에 가장 떨어져서 속도와 이해력이 반비례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통역사의 예와 마찬가지로 텍스트의 첫 번째 문단의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이 다양한 곳에서 분절이 일어났음을 파악할 수 있다. 분절한 부분을 // 기호로 표기한다.

<D>

Floods are// second// only to fire// as the most common of all natural disasters// They occur almost everywhere in the world,// resulting in widespread damage// and even death// Consequently,// scientists// have long tried// to perfect their ability to predict floods// So far,// the best// that scientists can do is// to recognize the potential for flooding// in certain conditions// There are a number of conditions, from deep snow on the ground// to human error,// that cause flooding//

<E>

Floods// are second only to fire// as the most common// of all natural disasters// They occur almost everywhere// (in the world), resulting in widespread damage// and even death// Consequently,// scientists have long tried to perfect their ability to predict floods// So far,// the best that scientists can do is// to recognize the potential for flooding in certain conditions// There are a number of conditions,// from deep snow on the ground// to human error,// that cause flooding//

<F>

Floods// are second only to fire// as the most common of all natural disasters// They occur almost// everywhere in the world,// resulting in widespread damage// and even death// Consequently,// scientists// have long tried// to perfect their ability to predict floods// So far,// the best that scientists can do is// to recognize the potential for flooding in certain conditions// There are a number of conditions,// from deep snow// on the ground// to human error,// that cause flooding//

(3) 그룹 3 - 직독직해 방식으로 5개월 연습한 그룹

직독직해를 5개월 배운 그룹을 분석한 결과 독해에 소요된 시간은 G, H, I가 각각 11분 37초, 8분 50초, 11분 14초로 약 10분대로 나타났으며 이후 이해력 테스트에서는 3분 39초, 3분 8초, 3분 45초의 시간이 소요되어 G의 총소요 시간은 15분 16초, H는 11분 58초, I는 14분 59초가 소요되었다. 그룹 1과 2보다 독해와 이해력 테스트 모두에서 시간이 모두 더 많이 소요되었다. 분당 발화

단어 수는 G가 36개, H가 49개, I가 38.6개였다. 분절횟수는 놀라울 정도로 많아 각각의 의미단위가 110개, 83개, 119개로 평균 100개에 달했다. 그룹 3은 그룹 2와 외국어 능력 테스트에서 같은 점수대를 갖고 있는 실험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연습한 기간에 따라 독해 소요시간의 차이가 크게 달라짐을 보여주었다. H의 경우 분절도 적고, 소요시간이 짧았지만 이해도에서 3개를 틀리며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표4〉 그룹 3의 문장구역 결과

	G	H	I
문장구역 소요시간	11'37"	8'50"	11'14"
이해력 테스트 소요시간	3'39"	3'08"	3'45"
총 소요 시간	15'16"	11'58"	14'59"
분당 발화 단어수(WPM)	36	49	38.6
의미단위	110	83	119
이해력 테스트 오답개수	0	3	0

또한 그룹 2와 마찬가지로 의미단위를 분절한 부분이 일정한 편은 아니었다. 세 학습자의 분절한 부분을 // 기호로 표기한다.

<G>

Floods are second// only to fire// as the most common of all natural disasters.// They occur almost// everywhere in the world,// resulting in widespread damage// and even death.// Consequently,// scientists// have long tried// to perfect// their ability to predict floods.// So far,// the best// that scientists can do is// to recognize// the potential for flooding// in certain conditions.// There are a number of conditions,// from deep snow on the ground// to human error,// that cause flooding.//

<H>

Floods are second only to fire// as the most common of all natural disasters.// They occur almost everywhere in the world,// resulting in widespread damage and even death.// Consequently,// scientists// have long

tried// to perfect their ability to predict floods.// So far, the best that scientists can do is// to recognize the potential for flooding in certain conditions.// There are a number of conditions,// from deep snow on the ground// to human error,// that cause flooding.

<I>

Floods are// second// only to fire as the most common of all natural disasters.// They occur// almost everywhere// in the world,// resulting in widespread damage// and even death.// Consequently,// scientists// have long tried// to perfect their ability to predict floods.// So far, the best// that scientists can do is// to recognize// the potential// for flooding in certain conditions.// There are a number of conditions,// from deep snow on the ground// to human error,// that cause floo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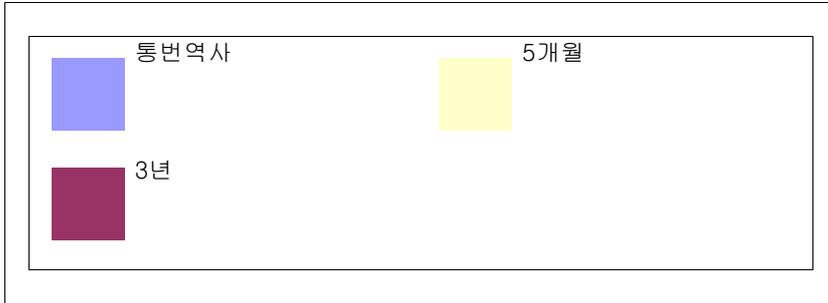
G과 I의 경우 두 단어마다 분절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렇게 분절이 많이 이뤄진 이유는 학습자가 직독직해를 습득하기에는 5개월의 시간이 너무 짧다는 점을 우선 들 수 있다. 학습자는 직독직해 방식을 5개월간 수업시간에 2시간씩만 배웠고, 총 40시간 연습을 한 것으로 연습량이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의미 분절을 어느 곳에서 해야 할지에 대한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전향적으로 분절해나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같은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서 독해 시간이 길어졌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독해를 조용히 하는 것이 아니라 발화하면서 한다는 것에서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4) 독해실험 평균 및 설문조사 결과

세 그룹의 평균을 보면 문장구역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5분 4초, 6분 56초, 10분 34초였고, 이해력 테스트에서는 1분 32초, 2분 18초, 3분 3초가 소요되어 총소요시간은 그룹 1은 6분 36초, 그룹 2는 9분 14초, 그룹 3은 13분 37초가 소요되었다. 그룹 3은 그룹 1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시간이 걸렸다. 분당 발화 단어 수는 그룹 1은 85.4개, 그룹 2가 63.7개, 그룹 3이 40.5개로 그룹 1이 가장 빠른 속도로 발화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그룹 2가 빨랐으며 그룹 3이 가장 느

린 속도로 발화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미단위의 개수는 각각 61개, 81.6개, 104개로 통번역사 그룹이 가장 길게 텍스트를 분절하며 의미단위를 길게 만들어 감을 알 수 있었다.

〈표5〉 세 그룹의 평균 비교



또한 통번역사의 소요시간이 가장 짧고, 의미단위가 긴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오답횟수로 비추어 보아 통번역사의 독해 정확도가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같은 토익 점수대의 학생이라도 정확도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3년의 숙달을 거친 학습자가 속도가 더 빨랐던 점을 보아 5개월은 직독직해를 배우기에 짧은 시간이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비추어보아 문장구역을 배우고 익숙해지는 데에도 5개월 동안 학생들이 연습한 40시간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세 그룹의 설문조사를 통해 문장구역이나 직독직해가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되지 않는지를 리커트 척도 5점 척도로 매우 도움, 도움, 보통, 도움되지 않음, 매우 도움되지 않음으로 분류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척도의 4점인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평균을 이뤘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한명도 없었다. 세부 문항으로 왜 문장구역이나 직독직해가 도움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 폐쇄형 질문지를 통해 답할 수 있었는데, 중복으로 응답이 가능했다. 통번역사 그룹인 그룹 1의 경우 영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문장구역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이유로 문장구역을 통해 의미단위를 분절할 수 있게 되면서 텍스트 이해력이 높아진다고 응답하였다. 그룹 2, 3의 경우 도움이 왜 되는지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 다수의 응답자가 의미 단위를 끊어서 볼 수 있어서, 독해

속도를 높일 수 있어서, 텍스트 이해력을 높여주어서라는 응답이 높았다. 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 하느냐는 질문에는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넘어가서 정확한 내용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라는 문항이 가장 응답이 높았다.

4.5. 실험결과 - 오류유형

통번역사의 경우 전사한 도착 텍스트만을 놓고 보더라도 자연스럽게 의미가 연결되는 발화가 많았다. 내용의 연결고리가 잘 연결되어 유기적인 텍스트가 되었다. 반면 외국어 학습자의 독해는 의미가 끊어지고, 어색한 부분이 많았는데 직독직해를 5개월 배운 학습자의 경우 그러한 경향이 더욱 짙었다. 크게 어휘의 간섭,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대명사 및 복수형을 그대로 사용, 내용 오류, 한국어 표현 깨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직독직해가 구두 번역 연습인 문장구역과 차이점을 보인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는 점이다. 오류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났는데, 원천텍스트의 어휘의 간섭을 받는 경우, 한국어 문법에는 없는 대명사와 복수형의 사용, 내용의 오류, 한국어 표현이 깨지거나 맞지 않는 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었다.

(1) 어휘의 간섭

외국어 학습자는 단어 혹은 어휘에 많은 간섭을 받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직역적인 해석은 물론,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발화하거나 어색한 도착 언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특히 5개월 직독직해를 연습한 학습자가 3년 연습을 한 학습자보다 텍스트에 더 많은 간섭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여 연습 및 숙달을 통해 문장의 유창성 또한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예1>

ST: If there is a fast snow melt **on top of** frozen or very wet ground

통번역사 TT1: 땅이 얼었을 때나 아니면 젖었을 때 눈이 빨리 녹게 되면

TT2: 땅이 얼거나 젖어있는 경우 눈이 빠르게 녹게 될 때

면

외국어 학습자 TT1: 만약 얼어있거나 매우 젖어있는 땅 **꼭대기에서** 빠르게 눈이 녹아내리면
 TT2: 높은 **지역에서** 눈이 녹거나 굉장히 젖은 땅에서 눈이 녹을 때

<예1>에서 보듯이 on top of를 통번역사는 땅이 얼거나 젖었을 때라고 본 반면 외국어 학습자는 top의 사전적 의미인 꼭대기라고 한다던가 높은 지역에서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전적인 의미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2>

ST: the large amount of water held behind the dam

통번역사 TT: 댐 뒤에 **간혀있던/가뒤편에** 대량의 물은
 외국어 학습자 TT1: 댐 뒤에서 **잡고 있던** 많은 양의 물이
 TT2: 댐에 **끼여 있는** 많은 양의 물들이
 TT3: 많은 양이 물이 **고이게 된다**
 TT4: 엄청나게 많은 물을 그 뒤에 **갖고 있는데**

<예2>에서는 hold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잡고 있다, 갖고 있다라는 뜻이 강하다. 통번역사는 댐과 어울리는 수식어인 간혀있다나 가뒤편에 있다고 한 반면 외국어 학습자는 잡다, 끼여있다, 갖고 있다라고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대명사 및 복수형 사용

외국어 학습자는 또한 한국어 문법에 맞지 않는 대명사와 복수형을 빈번하게 사용하였다. 그들은, 그것은 등은 영어의 they, it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며, 대명사가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대명사로 해석을 하는 것은 문장의 정확한 이해를 흐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또한 명사+s와 같은 복수형을 한국어로 해석할 때 한국어에는 복수형이 없으므로 복수형을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의 용례에도 맞지 않는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땅들, 물들로 해석하는 등 외국어 학습자는 빈번하게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3>

ST: **They** occur almost everywhere in the world,
 통번역사 TT: **홍수**는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며,
 외국어 학습자 TT1: **그것들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TT2: **그들은** 거의 세계 어디서나 일어난다.

(3) 내용오류

내용에서 오류도 발생하였는데, 이는 모르는 단어이거나 의미단위를 잘못 분절하여 나타난 경우로 해석할 수 있었다.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대부분의 학습자는 이를 유추하여 해석하려하기 보다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을 한다거나 영어 단어를 읽는 방법을 택했다. 의미단위를 잘못 분절하여 의미를 내용적 오류가 생기는 경우는 5개월 학습한 학습자에게서만 나타났다.

<예4>

ST: resulting in widespread **damage** and even death
 통번역사 TT: 큰 피해를 입히거나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게한다.
 외국어 학습자 TT1: 넓은 **데미지**나 심지어는 죽음까지로 이어진다.
 TT2: 어떤 결과나면 커다란 **데미지**와 죽음까지도 가져온다.
 TT3: 넓은 지역 (**모르겠는데...**) 죽음에까지 일으킨다.

(4) 어색한 한국어

일부에서는 한국어 표현이 어법에 맞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통번역사의 독해는 매끄러웠던 반면 듣기에 어떤 말인지 파악이 될 수 없는 표현들로 이렇게 한국어가 이상하게 발화되는 부분은 모든 외국어 학습자가 공통된 모습을 보였다. 이는 부족한 언어능력 때문에 단어가 너무 난해한 문제도 있었겠지만 앞 뒤 문장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예5>

ST: Whenever rivers are already **at their full capacity** of water
 통번역사 TT1: 강이 이미 물을 **더 이상 수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 TT2: 강의 물 수용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
 외국어 학습자 TT1: 강의 모든 물에 수용량으로 가득찬다면
 TT2: 강들이 적정 용량을 이미 채웠을때나 안채웠을때나
 TT3: 강의 이미 용량으로 가득차게 될 때는 언제나.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직독직해 방식과 문장구역 방식을 비교하여 향후 독해교수법에 문장구역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직독직해 방식의 경우 문장구역과 같이 의미단위를 분절하고 빠른 독해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문장구역은 직독직해에서 더 나아가 유창한 발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외국어 학습자의 언어능력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문장구역을 단시간 내에 습득하고 사용하기란 어려우리라 사료된다. 직독직해를 5개월 배운 학습자의 경우에도 의미단위 분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의미단위의 분절을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했으며 분절을 하더라도 너무 세세하게 분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문장구역과 비슷한 의미단위 분절을 하는 직독직해 방식을 3년 연습한 그룹의 경우 의미단위의 분절이 훨씬 자연스러웠으며 독해속도 또한 높은 것을 보아 오랜 기간 연습을 할 경우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직독직해 방식의 그룹이 문장구역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 또한 확인하게 되었다. 여전히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 천착하여 텍스트를 어떤 의미가 들어 있는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읽고 넘겨야 할 학습의 대상으로 본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물론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면에서 중요하지만 문장구역의 장점을 이용한다면 더욱 더 효율적인 외국어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장구역이 외국어 학습자에게 가져올 장점을 꼽아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역을 피하고 유연한 해석을 하도록 해준다. Van Dyk(2009:203)가 주장한 바대로 문장구역은 직역이나 자연스럽지 않은 번역을 피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을 찾도록 해준다. 텍스트 해석이 일대일의 등가적 표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대응되는 의미를 찾도록 하는 유연한 생각을 갖도록 해준다.

둘째, 모르는 단어가 나올 경우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통번역사의 경우 모르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유추하여 발화하거나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한 반면 외국어 학습자의 경우는 이 단어는 모르겠다고 말하거나 영어 단어 그대로를 읽으면서 이해하기보다는 넘어가려는 모습이 보였다. 텍스트를 전달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더욱 유추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수자는 학습자의 발화 내용을 듣고 이해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실험에서 확인하였듯이 학습자가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나 모르는 단어는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독해에 더 필요한 부분을 바로 확인하여 피드백을 주거나 독해평가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넷째, 텍스트 분석력을 높여서 독해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직독직해와 마찬가지로 문장구역은 의미단위의 분절을 통해 텍스트 분석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 단위는 연습을 통해 숙달을 하게 되면 의미단위가 커지게 되고, 텍스트 분석 속도 또한 높아지면서 독해 속도가 높아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실험을 통해 통역사의 문장구역을 모델로 제2외국어 학습자의 독해에 어떤 시사점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를 고찰해보았다. 실험에 참여한 대상이 문장구역을 배운 학습자가 아닌 직독직해를 배운 학습자라는 점에서 향후 연구에서는 문장구역을 오래시간 학습한 학습자와 문장구역을 전혀 배우지 않은 학습자를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 박노철 (2004) 「영어교육에 있어서 번역 교육의 필요성 연구」, 『한국영어교육 연구학회』 28: 1-27.
- 서승진 (1989) 「영어교육기법으로서의 구두 해석·번역법」, 『응용언어학』 2: 113-149.
- 안희영 (1993) 「문장구역에 관한 연구」, 경주대학교 석사논문.

- 손지봉, 김영민, 안희정, 옴김 (2007) 『통역교육연구 이론과 실천』, 서울: 한국문화사. (楊承淑. 2000. 譯教學研究: 理論與實踐, 타이완.)
- 이태형 (2008) 「통역사 훈련 방법을 활용한 대학 영어교육」, 『통역과 번역』 10(2): 125-52.
- 정혜연 (2008) 『통역학 개론』, 서울: 한국문화사.
- 홍설영 (2012) 「영-한 문장구역 수행의 어려움: 학습자의 수행 및 회상 데이터를 결합한 예비조사」, 『통번역학연구』, 16(1): 139-51.
- 홍설영 (2012) 「현직 통역사들의 문장구역 실무 수행 사례분석과 교육적 제언」, 『번역학연구』, 13(4): 235-67.
- Agrifoglio, M. (2004) 'Sight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Constraints and Failures'. *Interpreting* 6(1): 43-67.
- Annalisa S. (2003) 'New Technologies in Interpreter Training:CAIT', In Heidrum Gerzymisch-Arbogast, Eva Hajicova & Petr Sgall, Zuzana Jettmarova, Annely Rothkegel and Dorothee Rothful-Bastian (Eds.). *Textologies und Translation*. Gunter Narr Verlag Tubingen. Germany, 261-94.
- Beeby, A. (2004) 'Language learning for translators: Designing a syllabus', In K. Malmkjær (Ed.), *Translation in Undergraduate Degree Programmes*. Middlesex University,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39-65.
- Davies, M.(2004) 'Undergraduate and postgraduate translation degrees: Aims and expectations'. In K. Malmkjær (Ed.). *Translation in Undergraduate Degree Programmes*. Middlesex University,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67-81.
- Donovan, C. (2007) 'Conference Interpreter Training? Constraints and Responses', *Forum*, 4(1): 1-23.
- Gile, D.(1995) *Basic concepts and models for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ing*. Amsterdam/Philadelpia: John Benjamins.
- Gnutzmann, C. (2009) 'Translation as Language Awareness: Overburdening or Enriching the Foreign Language Classroom?'. In A. Witte, T. Harden & A. R. de Oliveira Harden (Eds.), *Translation in Second Language*

- Learning and Teaching*, Bern: Peter Lang, 53-78.
- Lambert, S. (2004) 'Shared Attention during Sight Translation, Sight Interpretation and Simultaneous Interpretation', *Meta*, 49(2): 294-306.
- Lee, H. (2006) 'Is there an ideal curriculum for the training of translators', *통역학연구*10(1): 133-72.
- Lee, S. (2007) 'The use of segmentation strategy in sight translation',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9(1): 153-72.
- Van Dyk, J.(2009) 'Language Learning through Sight Translation'. In A. Witte, T. Harden & A. R. de Oliveira Harden (Eds.), *Translation in Second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Bern: Peter Lang, 203-14.
- Cenkova, I. (2010) 'Sight Translation: Prima Vista'. In Y Gambier & L. v. Doorslaer (Eds.),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320-23.
- Weber, W. K. (1990) 'The Importance of Sight Translation in an Interpreter Training Program'. In D. Bowen & M. Bowen (Eds.), *Interpreting -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inghamton N.Y. 44-52.
- Witte, A. (2009) 'From Translating to Translation in Foreign Language Learning'. In A. Witte, T. Harden & A. R. de Oliveira Harden (Eds.), *Translation in Second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Bern, Peter Lang. 79-118.
- Zojer, H. (2009) 'The Methodological Potential of Translation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Re-evaluating Translation as a Teaching Tool. In A. Witte, T. Harden & A. R. de Oliveira Harden (Eds.), *Translation in Second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Bern, Peter Lang. 31-52.

〈첨부 1〉 문장구역 텍스트

Floods are second only to fire as the most common of all natural disasters. They occur almost everywhere in the world, resulting in widespread damage and even death. Consequently, scientists have long tried to perfect their ability to predict floods. So far, the best that scientists can do is to recognize the potential for flooding in certain conditions. There are a number of conditions, from deep snow on the ground to human error, that cause flooding.

When deep snow melts it creates a large amount of water. Although deep snow alone rarely causes floods, when it occurs together with heavy rain and sudden warmer weather it can lead to serious flooding. If there is a fast snow melt on top of frozen or very wet ground, flooding is more likely to occur than when the ground is not frozen. Frozen ground or ground that is very wet and already saturated with water cannot absorb the additional water created by the melting snow. Melting snow also contributes to high water levels in rivers and streams. Whenever rivers are already at their full capacity of water, heavy rains will result in the rivers overflowing and flooding the surrounding land.

Rivers that are covered in ice can also lead to flooding. When ice begins to melt, the surface of the ice cracks and breaks into large pieces. These pieces of ice move and float down the river. They can form a dam in the river, causing the water behind the dam to rise and flood the land upstream. If the dam breaks suddenly, then the large amount of water held behind the dam can flood the areas downstream too.

Broken ice dams are not the only dam problems that can cause flooding. When a large human-made dam breaks or fails to hold the water collected behind it, the results can be devastating. Dams contain such huge amounts of water behind them that when sudden breaks occur, the destructive force of the water is like a great tidal wave. Unleashed dam waters can travel tens of kilometres, cover the ground in metres of mud and debris, and drown and

crush everything and creature in their path.

Although scientists cannot always predict exactly when floods will occur, they do know a great deal about when floods are likely, or probably, going to occur. Deep snow, ice-covered rivers, and weak dams are all strong conditions for potential flooding. Hopefully, this knowledge of why floods happen can help us reduce the damage they cause.

〈첨부 2〉 이해력 텍스트

1. Which of the following are included as causes for floods in the reading passage?
A. droughts B. large lakes C. poorly built roads D. melting snow

2. How does deep snow cause flooding?
A. melting snow causes flooding
B. too much rain causes flooding
C. sudden warm temperatures combined with heavy rains causes flooding
D. freezing water causes flooding are second only to fire as the most common of all natural disasters.

3. A broken human-made dam is compared to what?
A. a tsunami B. a tidal wave C. a broken ice dam D. overflowing

4. Which of the following best describes how a frozen river can cause a flood?
A. The ice in the river melts too quickly and causes a flood.
B. The ice in the river cracks causing the water to overflow.
C. The ice in the river cracks into pieces that eventually create a dam causing the water to overflow.
D. The water behind the ice dam collects and when the dam breaks, it causes

flooding upstream.

5. How far can dam water travel when it is unleashed from a broken dam?

- A. less than 10 kilometres
- B. tens of kilometres
- C. thousands of kilometres
- D. tens of thousands of kilometres downstream

6. Why does saturated ground contribute to flooding problems?

- A. the ground cannot absorb more moisture
- B. the ground is too hard, so the water runs off
- C. the ground forms a kind of dam
- D. it remains frozen

7. What kinds of problems can floods cause?

- A. death
- B. widespread damage
- C. destruction of plants and animals
- D. all of the above

8. What is the most common natural disaster?

- A. flood
- B. fire
- C. wind damage
- D. rain

9. How does melting snow cause problems related to flooding?

- A. it makes the rivers run too fast
- B. it makes the water too cold
- C. it causes pieces of ice to block the river
- D. it makes the level of the river rise

〈첨부 3〉 설문지

본 설문조사는 영어독해능력을 위한 문장구역(직독직해)의 활용에 관한 논문을 위한 설문조사이오니 바쁘시더라도 각 문항에 성의껏 작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귀하의 간단한 인적 사항을 적어주세요.

1. 성별 ○○남 ○○여

2. 나이: 세

3. 직업:

◆ 다음은 귀하의 영어 독해에 관한 설문입니다.

1. 영어지문을 독해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각 항목 하나씩을 선택)

1)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아 의미를 해석한다.

1-1)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 유추해 의미를 해석한다.

2) 문법을 생각하며 독해한다.

2-1) 문법과 상관없이 독해한다.

3) 한국어의 어순대로 문장의 앞뒤를 오가며 독해한다.

3-1) 영어의 어순대로 앞에서부터 독해한다.

4) 입으로 소리내어 독해한다.

4-1)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독해한다.

5) 의미단위를 끊어가며 독해한다.

5-1) 의미단위를 끊지 않는다.

○ 기타 의견:

2. 독해를 할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올 경우 어떻게 하십니까?

-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 즉시 사전을 찾아 독해한다.
-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 넘어간 후에 나중에 글을 다 읽은 후에 사전을 찾는다.
-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뜻을 유추해 독해한다.
-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더 이상 독해를 할 수 없다.
- 기타:

3. 독해를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 모르는 단어
- 한국어와 다른 문법구조
- 난해한 주제
- 기타:

4. 토익점수는 몇 점입니까?

- 700점대
- 750점대
- 800점대
- 850점대
- 900점대
- 950점대
- 기타

5. 토익점수가 없다면 토플이나 텡스 점수는 몇 점입니까?

- 토플:
- 텡스:

◆ 다음은 문장구역에 관한 설문입니다.

1. 문장구역(직독직해)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네
- 아니오

2. 문장구역(직독직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장구역을 정의하여 주십시오.

3. 문장구역(직독직해)을 언제 배우셨습니까?

4. 문장구역(직독직해)을 배운 이후로 계속 사용하고 계십니까?

- 네
- 아니오

5. 문장구역(직독직해)이 독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도움 도움 보통
- 도움이 안됨 매우 도움이 안됨

6. 문장구역(직독직해)이 독해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 응답가능)

- 의미단위로 끊어서 볼 수 있는 눈을 기를 수 있어서
- 독해 속도를 높일 수 있어서
- 입으로 소리 내어 독해를 하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 텍스트의 이해력을 높여주어서
- 한국어의 문법 구조에 얽매이지 않고 독해할 수 있어서
- 기타:

7. 문장구역(직독직해)이 독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기술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 응답가능)

- 조용히 독해를 하는 것이 소리를 내어 독해를 하는 것보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넘어가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이해할 수 없어서
- 한국어의 어순과 충돌하기 때문에
- 시간이 더 오래 걸려서
- 기타:

8. 문장구역(직독직해)을 할 때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중복 응답가능)

- 난해한 주제의 텍스트
- 모르는 단어
- 한국어
- 속도
- 기타:

[Abstract]

Use of Sight Translation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 Comparative experiment between translators and language learners

Jeong, Dawo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use of sight translation in second language learning. Translation and language education seem to be close and relevant, but many researches tried to put the two apart as translation was easily stigmatized as an uncomplicated task, code-switching. The greatest damage done to the reputation of translation as a language teaching tool was probably inflicted by the Grammar-Translation itself (Zojer, 2009). This study argues that translation, especially, among several translation practice techniques, sight translation is still a useful method for second language learners.

To see whether the translating method that is practiced among translators to read and understand written and oral text faster can be used for second language learners, the study conducted an experiment comparing interpreters and language learners. The participating groups were categorized as professional translators, language learners who practiced chunk reading, which is similar method with sight translation, for 3 years and language learners who practiced chunk reading for 5 months.

The comparison was to see if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ranslators and language learners in terms of errors, segmentation and reading time. And the study also looked into how sight translation can help language learning by comparing results of sight translation and chunk reading. The result was translators' performance was reasonably outstanding among the three groups and their oral translation was well understood without the original text. And the

less the language learners practiced chunk reading they took more time to read and comprehend the text and segmented more units in a sentence. After the test, all the participants were asked whether the skill is helpful, all the participants answered that the skill is helpful in raising the reading speed and comprehension level as well as become able to segment meaning units.

▶ Key Words: chunk reading, English reading method, meaning unit, second language learning, sight translation

정다워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starisme@dreamwiz.com

관심 분야: 통번역교육,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아동문학 번역

논문투고일: 2014년 4월 30일

심사완료일: 2014년 5월 30일

게재확정일: 2014년 6월 16일